



한국수출입은행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북한의 금융 : 실태와 과제

▶ 주 최

한국수출입은행

▶ 후 원

통 일 부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6. 6. 28(화) 13:30 ~ 17:50

장소 : 프레스센터

[초대 의 글]

한국수출입은행은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설립 이후 매년 남북 관계 및 북한경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립 40주년 기념을 겸하여 “북한의 금융: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총서 발간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북한은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외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 사금융의 발전 등 자생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개혁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금융의 실태를 검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에 귀중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 덕 훈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0~1:45	등 록
1:45~2:00	▶ 개회식 · 개회사: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 축 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
2:00~2:10	· 기조발표: 북한 경제 구조의 변화와 금융 조동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소장)
2:10~3:50	▶ 제1 세션 - 북한 금융의 실태 · 사 회: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 발 표 1: 북한의 금융제도와 금융기구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발 표 2: 북한의 사금융 시장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발 표 3: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토 론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3:50~4:10	휴 식
4:10~5:50	▶ 제2 세션 - 북한 금융의 과제 · 사 회: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 발 표 1: 중국의 금융개혁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발 표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전망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 발 표 3: 북한 금융개혁의 과제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 1 세션

북한 금융의 실태

북한의 금융제도와 금융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 광 진

북한의 금융제도와 금융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

I. 북한의 금융제도

□ 제도의 이해

- 금융의 정의: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
- 금융제도: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은행제도와 화폐, 신용 및 자금공급 제도의 총체”
- 금융의 기능: 제정의 보조, 원에 의한 통제를 통해 계획경제수행에 기여, 즉 국가예산 및 국가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역할 수행

□ 금융의 내용

- 자금공급은 불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동으로 계획에 따라 국가자금이 동원, 이용되는 형태
- 신용은 반환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것, 여기에는 대부, 저금, 국가보험 등이 있음. 저금과 보험은 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것, 대부는 동원된 자금을 이용하는 것임
- 화폐유통은 신용과 자금공급에 따르는 화폐자금이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거래형태,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구분

□ 금융관련 당국

○ 재정성

- 중앙재정지도기관으로서 예산 수립 및 집행행정 총화업무 진행

○ 조선중앙은행

- 북한의 금융사업을 지도, 특히 단일은행제도 하에서 북한원에 대한 모든 거래 진행

(북한의)“중앙은행법”

제4조(금융사업의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금융사업은 중앙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 조선무역은행

- 단일은행제도 하에서 북한 유일의 외화관리기관으로서 외환과 관련된 모든 업무 책임

□ 단일은행제도

- 재정성 소속의 북조선중앙은행 설립, 이후 1959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으로 개칭
- 북조선농민은행은 1958년 10월 조선농업은행으로 개편되며 1959년 7월에는 중앙은행으로 통합
- 국립건설자금은 1964년 중앙은행으로 흡수
- 산업은행은 1976년에 중앙은행으로 통합, 이로서 단일은행제도 완성
- 외환업무는 1959년 11월 중앙은행에서 분리되어 조선무역은행 창립

□ 금융정책 추진과정

- 해방 후-1960년대: 사회주의 금융기반 구축, 단일은행제도 추진
- 1970-1990년대: 단일은행제도 완성, 외자도입 확대, 대외개방을 위한 금융제도 변화 시도
 - 서방차관 도입
 - 대성은행, 조선합영은행, ING-동북아시아은행, 페레그린-대성은행 설립
- 2000년 이후: 금융업무 다각화 추진
 - 무역은행 외화정기예금, 직불카드 도입
 -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채택

□ 원에 의한 통제

- 정의: 중앙은행이 화폐유통의 계획적 조절, 전국적인 결제, 국가예산자금의 수입과 국가자금의 공급, 대부, 노동보수자금의 지불, 고정재산에 대한 등록 및 평가와 같은 화폐적 공간을 이용하여 국가 기관·기업소의 원료, 자재구입과 노력이용, 생산물의 생산과 판매, 고정재산의 취득과 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활동을 재정, 금융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원, 1995, p. 1464.)

□ 무현금 결제

- 정의: 기관·기업소·단체 사이 생산수단거래 등에 적용되는 화폐유통의 한 형태, 즉 현금을 쓰지 않고 대금지불을 청구 또는 위임하는 결제문서를 통해 계좌에서 계산상으로만 화폐자금을 옮겨놓는 방법
 - 생산수단: 무현금
 - 소비상품: 생산목적은 무현금, 기타목적은 무현금 또는 현금

- 목적은 모든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켜 자금유통활동을 보장하며, 유틸 화폐자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물자의 계획적인 유통과, 자금순환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함
- ▶ 즉시지불청구서; 공급자(seller)의 대금청구에 대해 은행이 즉시 지불하는 방식, 선 물자공급 후 대금청구 방식(계획에 의한 물자거래, 봉사에 적용)
- ▶ 지불청구서; 공급자(seller)의 지불청구서를 수요자가 확인한 다음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위약금, 연체료, 보관료 등에 적용)
- ▶ 지불위탁서; 수요자(buyer)의 지불위탁서에 대해 공급자에게 즉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시제품, 견본품, 기관사이 자금 지불등에 적용)
- ▶ 무현금 행표; 공급자(seller)의 지급청구에 대해 즉시 지급하는 방식(운임, 도서대금, 소비상품 등에 적용)
- ▶ 즉시 지불서; 은행이 수요자(buyer)에게 즉시지불서를 발행해 주면서 그 대금을 수요자 기업의 계좌에서 먼저 차감하는 방식(물자거래 및 봉사에 적용)

□ 금융관련 법 체계

- 중앙은행법(2004.9.29 채택)
- 상업은행법(2006.1.25 채택)
- 외화관리법(1993.1.31 채택, 2004년 마지막으로 수정보충)
- 보험법(1995.4.6 채택, 2008년 마지막으로 수정보충)
- 국가예산수입법(2005.7.6 채택, 2011년 마지막으로 수정보충)
- 재정법(1995.8.30 채택, 2011년 마지막으로 수정보충)
- 화폐유통법(1998.11.26 채택, 2009년 마지막으로 수정보충)
- 가격법(1997.1.29 채택, 1999년 마지막으로 수정보충)
- 외국투자은행법(1993.11.23 채택, 2011년 마지막으로 수정보충)

II. 북한의 금융기구

1. 은행

□ 조선중앙은행

○ 중앙은행 기능

- 내각 직속기관으로 내각의 지휘를 받으며, 당적으로는 노동당 계획재정부의 지도를 받음

위의 법

제11조(중앙은행 리사회 리사장) 중앙은행 리사회 리사장은 중앙은행총재가 한다. 리사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내각 앞에 책임진다.

제39조(기타 금융사업) 중앙은행은 내각이 승인한 범위의 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 △국가 금융사업 전반에 대한 통제와 지도, △발권, △통화조절, △기준 이자율 제정(대부, 예금이자율), △은행 간 지급결제, △채권 발행 및 관리, △국고금 관리, △귀금속 관리, △고정재산 관리 진행

위의 법

제4조(금융사업의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금융사업은 중앙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제36조(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의 제정)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을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종합된 회계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금융 사업에 대한 지도)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 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업무활동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금융기관의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31조(귀금속의 관리) 귀금속의 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 은 같은 귀금속의 장악, 보관, 리용, 판매 사업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귀금속의 대외판매는 중앙은행이 위임한 금융기관도 할 수 있다.

제32조(예금 돈자리의 개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사이의 결제, 지불준비금의 적립 같은 것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4조(고정재산의 장악) 중앙은행은 국가의 고정재산을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장악은 부문별, 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8조(국고대리) 중앙은행은 국고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중앙재정지도 기관과의 연계 밑에 국가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며 지출은 수입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국가정책금융 및 기업금융 기능

- 평양에 본점, 전국에 11개의 도총지점(9개 도 소재지, 나선특별시, 개성 직할시), 210개의 지점(시·군·구역)

- 국가자금 공급

- 기본건설자금; 고정재산 확대와 관련된 자금
- 대보수자금; 고정재산 보수용 자금
- 유동자금; 원자재 구입과 생산에 필요한 자금
- 경비예산자금; 예산제 기관, 기업소 경비에 필요한 자금

* 자금공급의 목적은 국가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보장과 은행통제에 의한 기관·기업소들의 계획적인 경영보장에 있음

- 금융기관 대부, 기업대부(신용포함)

위의 법

제28조(금융기관의 대부)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이 부족 되는 금융기관에 대부를 준다. 대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대부 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 국영기업소 대부:

❖ 계획대부; 계획에 반영된 대부

❖ 조절대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 생산계획에 변동이 생기거나 자재를 계획보다 추가로 구입할 경우 부족한 자금을 계획대부 외에 더 조달해주는 대부

❖ 보충대부; 경영활동을 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족자금에 대한 대부

➤ 협동단체 대부

➤ 기타대부

* 대부는 은행의 수익성(이윤)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희화폐자금을 동원하여 자금이 모자라는 기관·기업소들에 여유자금을 공급해주고 대부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상환 받는 경제적 공간으로 활용됨

○ 개인금융(화폐유통)

- 예금: 기업의 예치금으로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 통화성예금

➤ 예금수입(원천)에는 기본건설 및 대보수자금, 대부자금, 판매수입, 봉사료수입, 현금수입 등이 있고

➤ 예금지출에는 생활비(임금), 여비, 국가예산납부, 대부금반환, 물자대금지출 등이 있음

- 저금: 개인의 저축성 예금

➤ 준비저금: 일정액을 3개월 이상 예금하고, 만기 시에 인출하는 장기성 저금(연이율 3.6%)

- ▶ 보통저금: 저금 금액과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성 저금(연이율 3%)
- ▶ 저금권저금: 저금액에 해당하는 저금증서를 통장 대신 발급하는 단기성 저금으로서 저금권 발급은행 이외의 은행에서도 인출 가능(연이율 3%)
- ▶ 추첨제저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저금과 유사하나 별도 이자지급 없이 분기 1회 실시하는 추첨에 당첨되면 당첨금(또는 물품) 지급

□ 조선무역은행

- 단일은행제도 하에서 북한의 유일한 외화관리은행으로 창설
- 은행 안에 특수자금을 관리하는 조선광선은행/조선광선금융회사와 조선금강은행을 별도로 운영
- 국제결제, 환율제정, 외환,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여행자행표, 무현금행표, 국가채무, 국가 간 청산결제, 저금 등의 서비스 제공

□ 기타 은행들

○ 조선대성은행

- 1978년 창설된 가장 대표적인 부문별 외환은행으로서 노동당 39호실 자금 관리
- 거래자들은 대성지도국, 경흥지도국, 락원지도국, 금강지도국, 대흥지도국, 모란지도국 등임
- 대동신용은행(전신 페레그린-대성은행)이라는 합자은행 운영

○ 단천상업은행

- 전신 창광신용은행으로서 노동당 군수공업부/2경제위원회의 자금관리 담당
- 대외적으로 압록강개발은행으로도 활약

o 동북아시아은행

- ING와 대외보험총국이 합자한 ING-동북아시아은행으로 처음 출범, 이후 동북아시아은행으로 활동
- 노동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의 대외보험총국 소속이었다가 당 39호실, 당 행정부소속을 거쳐 현재 군 총정치국 금강국제그룹(KKG)의 자금관리 담당

o 이외에

- ▶ 고려은행; 당 38호실 소속, 38호실은 현재 39호실에 흡수됨
 ❶ 고려신용개발은행 운영
 - ▶ 고려상업은행; 당 통전부
 - ▶ 조선통일발전은행; 당 경공업부
 - ▶ 제일신용은행/경영신용은행; 225국/전신 당 대외연락부
 - ▶ 일심국제은행; 군
 - ▶ 제일신탁은행; 군
 - ▶ 동방은행; 군
 - ▶ 조선체신은행; 체신성
 - ▶ 조선신용은행; 전 당 중공업부 소속
 - ▶ 황금의 삼각주은행; 내각 소속으로 라-선 특별시에서 활동
 - ▶ 하나은행; 전신 조선합영은행
 - ▶ 국제산업은행; 당 선전부 소속 만수대창작사가 운영
 - ▶ 오라은행; 체신성과 이집트 오라스콧이 운영
 - ▶ 조선농업투자은행
 - ▶ 동해은행
 - ▶ 하이펀드 국제은행
 - ▶ 조선락원금융합영회사
- 등이 있음

2. 비은행 부문

□ 보험

- 조선국영보험총회사/대외보험총국(전신 조선국제보험회사)가 국내보험을 독점하고 있음
- 이를 원천으로 국제재보험활동을 통해 혁명자금 조달이 주 업무
- 재보험업무는 화재, 선박, 기계, 항공, 농작물, 자동차 등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다루고 있음
- 생명보험은 2005년부터 중앙은행이 하던 인체보험을 인수하여 진행
- silibank.com의 독점적 이메일 서비스와 프로그램개발을 담당한 626기술봉사소, 대동강라면공장, 위생대공장, 연마지회사, 중국선양 칠보산호텔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박, 투자, 무역사업도 진행

□ 저축 및 협동적 신용

- 우체국 저금시스템은 존재하나 경제난으로 형식적으로 운영
- 농촌을 위한 협동적 신용시스템도 마찬가지. //끝//

북한의 사금융 시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 영 자

북한의 사금융시장: 실태와 구조

박영자(통일연구원)

I

<목차>

- ▶ I. 서론
- ▶ II. 북한 사금융의 역사와 현황
- ▶ III. 사금융시장의 유형과 실태
- ▶ IV. 사금융시장의 구조와 행위자
- ▶ V. 결론: 북한 사금융시장의 특성과 전망

▶ 2

I. 서론

- ▶ 목적 : 북한 사금융시장의 역사적 실태 및 구조 규명
- ▶ 개념 :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환전, 금융중개(송금, 물자대금결제 대행), 고리대금, 자금 대부 등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 ▶ 연구범위 : 영리 목적의 중개인 및 수요-공급자 간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비공식 사금융시장

▶ 3

II. 북한 사금융의 역사와 현황

- ▶ 1970년대 : 특수단위 무역으로부터 시작
- ▶ 1980년대 : 환전, 1990년대 : 고리대
- ▶ 2000년대 : 대부 및 투자기능으로 확장
- ▶ 2010년대 : 송금시스템 갖추어지며 국내외 기업 간 물자대금결제 대행이 정착화되고 수요와 공급 구조가 갖추어진 시장으로 발전
- ▶ 사금융 주도 돈주가 권력층과 후견-피후견 관계로 보호받고 네트워크 통한 부패로 통제 효과성 낮음
- ▶ 외화벌이 및 독립채산제로 작동하는 국가기관, 기업소 활동이 사금융시장과 연결

▶ 4

Ⅲ. 사금융시장의 유형과 실태

1. <농촌의 현물고리대 : 개인과 농장원 간 거래>

- ▶ 초기 3~5배에서 2000년대 2배 수준 안정화(by 시장화).
- ▶ 농촌 비사회주의검열 강화되며 간부들 직접 만나서고, 농촌도 부유층 형성되며 이들 주도 현물화폐 거래되다 최근 화폐거래 증대

2. <도시의 고리대금 : 상인 간 거래 및 개인 간 거래>

- ▶ 2000년대 초까지 미전문화-밀수업자들이 검업 : 이윤 불안정
- ▶ 일상적으로 시장상인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채 수준
- ▶ 2009년 화폐개혁 후 계층균열 심화와 함께 돈주 분화 : 당시 살아남은 돈주들 현 북한 사금융시장 주도하며 점차 그 내부에 위계구조 뚜렷
- ▶ 2013~14년 경 사채이율 하강 안정화, 자금수요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을 경우 낮은 이율

▶ 5

3. <권력층 대부 : 고위직 및 은행과 기업 간 거래>

정치우위 독재체제인 북한사회에서 '정치적 후견인 중심의 후견-피후견 관계'로 움직이는 권력층 대부

- ▶ 일반 사금융시장 대부와는 차이: 이윤이 주목적이기 보다는 소수 권력층의 공생 관계에 기반

* 국가자금을 개인자금처럼 관리하는 최고위층 및 이들과 사업상/개인적 후견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기관 책임자 네트워크 통해 작동

- ▶ 국가의 공식금융 기관인 은행 특히 당과 군 내 무역 등을 관할하는 권력기관의 특수은행들과 기업 간 거래도 네트워크 통해 비공식적 작동

* 권력층 대부는 주로 고위직과 기업 간 거래, 주로 특수은행과 기업 간 거래로 사금융시장이 작동하는 데, 그 핵심에는 권력층 내부의 후견-피후견 관계

▶ 6

4. <환전 : 환전상과 개인·기업 간 거래>

- ▶ 가장 일반적 거래: 돈장사(환전상)의 기본 업무

* 환전은 큰 이윤이 남는 업무는 아니나, 외화가 일반 소비 시장에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북한사회 현실로 인해 거래규모가 크며, 환율 변동 폭이 클 때 시세차익

5. <기업 대부 및 투자: 개인과 기업 간 거래>

- ▶ 돈주가 국가기관인 기업에 직접 대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로 간접적 방법인 개인 인맥 활용: 직접 이윤 창출 보다 정치경제적 보호/관계 형성자원으로 작동

- ▶ 자재거래 형태의 투자 관계가 일반적: 기업은 대개 전문 사채업자라고 할 수 있는 돈장사와의 거래 보다는, 비공식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돈주 인맥과 거래

▶ 7

6. <송금 시장> : 북한 사금융시장에서 체계화

* 주민생활과 불법자금 유통, 북중무역, 기업활동 일상화

- ▶ <송금 유형 ① : 개인과 개인(가계) 간 송금 거래>

- ▶ <송금 유형 ② : 북중 간 물자대금결제 대행>

국외 기업 간 거래를 돈장사와 밀수업자 등이 결제 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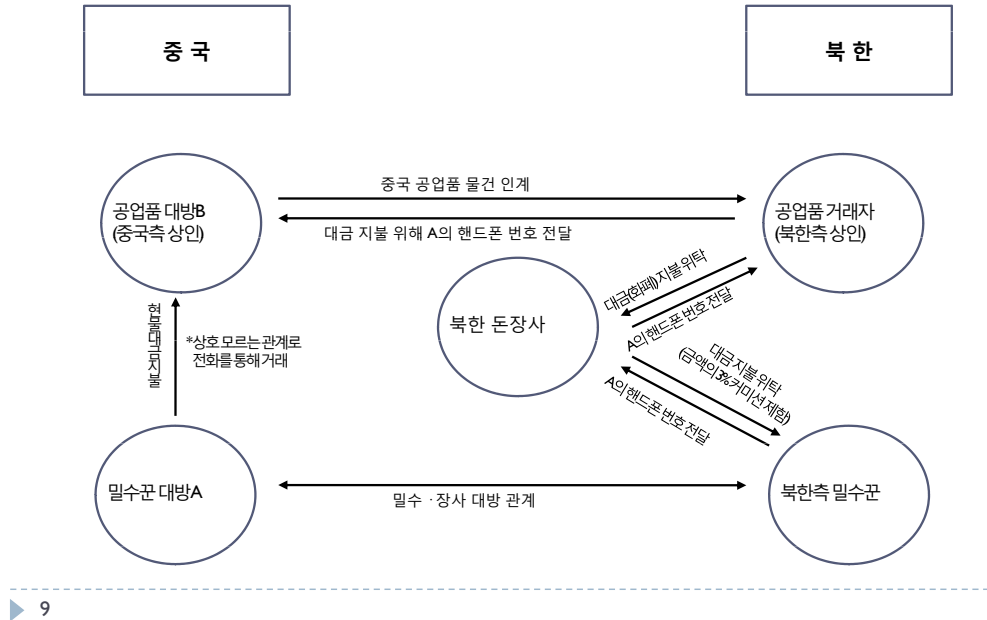
- ▶ <송금 유형 ③ : 국내 물자대금결제 대행>

지역 간 개인/기업거래를 돈주 네트워크(알쌈) 통해 대행

* 송금유형 ②와 ③ : 북한 사금융시장 특성 이해에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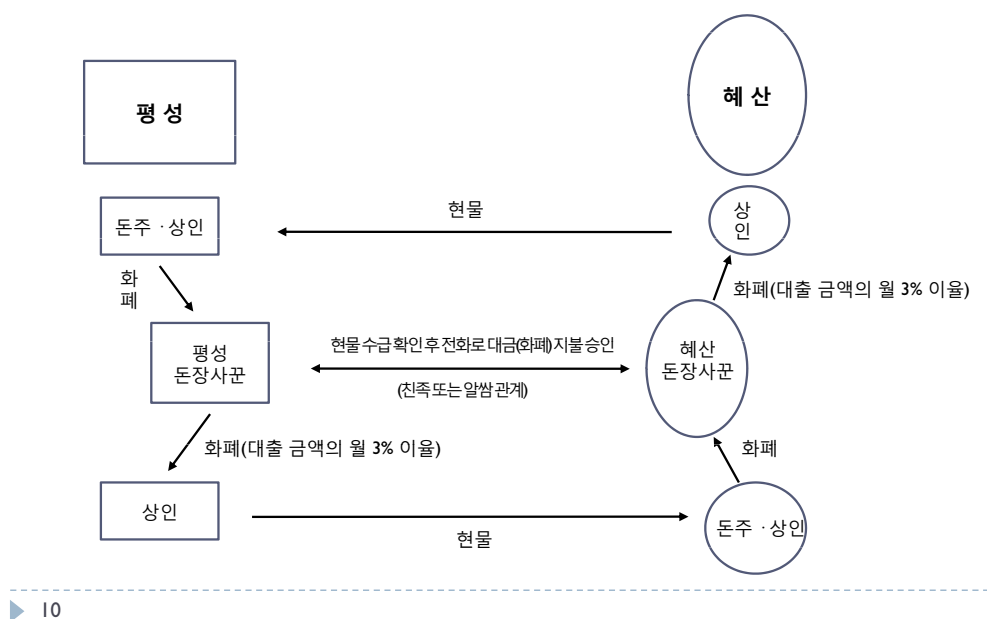
▶ 8

<그림 1> 북한 사금융시장 작동 I :북중 거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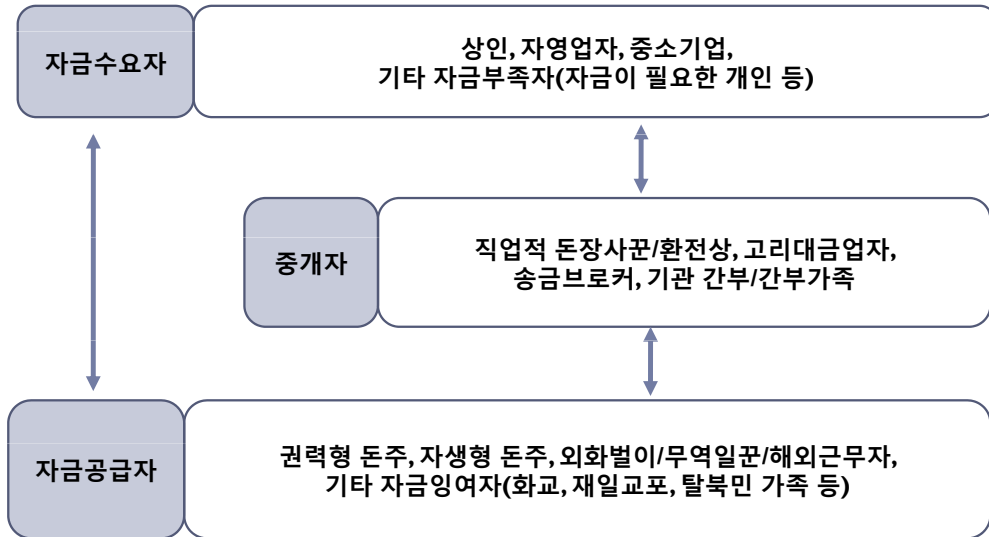
▶ 9

<그림 2> 사금융시장 작동 II : 내부 '평성-혜산' 사례



▶ 10

IV. 사금융시장의 구조와 행위자



▶ 11

I. <사금융시장에서의 수요> : 개인과 기업

국가 공식은행인 제도금융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금지되거나, 제도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며, 당국으로부터 자금수요를 숨기려는 **수요측 특성**

- ▶ 첫째, 시장화 후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식 제도금융기관은 제조업 위주의 자금배분 정책이 지속됨으로, 특히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에서 자금수요가 높은 상황
- ▶ 둘째, 공식 금융기관의 만성적 자금부족, 신용배분의 규제, 상업은행의 부재, 각종 자금 통제, 경직된 거래 관행, 낮은 행정처리 등으로 사금융 시장이 공공금융 시장 기능을 대체
- ▶ 셋째, 북한사회 생활양식의 변화로 소비 자금 수요가 증대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

* 현재 북한에서 대표집단은 북한 시장경제 주요 주체(다양한 상인, 서비스업 주도 자영업자, 지방산업 중 독립채산제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발전한 중소기업), 가계와 개인의 필요에 따른 기타 자금부족자, 그리고 권력기관 내부에서 국가의 외화벌이 과제, 기관 운영 급전, 당면 성과/목표 달성 등을 이루기 위해, 안면관계를 통한 금융거래가 존재

▶ 12

2. <사금융시장에서의 공급>

- ▶ 자금공급의 유인 : 자금은익, 고금리-고수익, 자금운영의 편리성 등

* 중개인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북한의 부패 구조 및 후견-피후견 관계, 생활 속에 안면관계 간 거래 관행이 일상화

- ▶ 권력형 돈주 : 국가권력기관 외화벌이나 직위를 이용해 먹고 사는 북한 관료사회 특성으로 인해 각종 부패구조를 통해 자금을 모으며 이 자금(소위 '검은 돈')을 운용하려는 이들.

* 그러나 이들은 정권 감시의 1차 대상이기에 자신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대개 자신의 가족이나 중개인을 통해 자금을 공급 운용

- ▶ 자생형 돈주 : 시장화 과정에서 성장한 도매상인이나 자영업, 가내수공업 등을 통해 성장

* 현재 자생형 돈주의 경우, 화폐개혁 이후 살아난 이들로 권력층과 '권력-부 공생' 네트워크

- ▶ 그 외 이들 돈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외화벌이, 무역일꾼, 해외근무자, 화교, 재일교포, 탈북민 가족 등 기타 자금잉여자들

▶ 13

3. <사금융시장에서의 중개>

돈장사(환전상 겸), 기관 중간간부/개인, 송금브로커들이 이들 중개자 역할

- ▶ 첫째, 돈장사꾼이라 불리는 전문 사채업자로 장마당에서 활동하며 환전, 송금, 결재대금 대행 등 주도: 이들에겐 자금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들과 그 자금의 안전이 보장되는 자금수요자를 물색하거나 거래

- ▶ 둘째, 공장-기업소 등과 거래하는 전문 사채업자로 기업과 돈주를 연결하는 결재대금대행 업무가 주요 기능: 기업에서도 지배인 등 상층 관리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며 중간간부나 재정담당자를 내세워 중개인과 거래. 규모 큰 돈장사꾼은 왕초라 불리며, 그의 네트워크를 통해 몇몇 전문 사채업자를 두고 한국의 사채업자와 같이 대출 심사 및 회수 등을 관리

- ▶ 셋째, 권력형 돈주의 여유자금 등을 중개하는 개인 사채업자로 대개 권력형 돈주의 자금 중개인으로 간부 가족이나 부인들로 구성. '검은 돈'을 유통시키는 것이기에 운용자금을 가진 권력층이 드러나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수하나 가족들이 주도

- ▶ 넷째, 자금공급자가 돈과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금수요자 보다 자금공급자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나 이들의 모든 이유는 자금수요자로부터 형성. 즉, 중개인에게서 돈이 나갈 때만 수수료 받는 구조

* 사금융시장 중개업자들인 직업적 전문 돈장사꾼 규모가 북한체제에서 사금융시장 수준 진단의 중요 지표: 2013년 후 기준, 도시규모 및 발전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

예) 청진시 인구 약 70만명 중 100명 이상. 평양시 한 구역 2~30만 중 100명 수준.

남포시 한 구역 약 10만명 중 20명 수준. 혜산시 인구 20만명 중 30명 정도.

▶ 14

V. 결론 : 북한 사금융시장의 특성과 전망

- ▶ **5대 보편성** : 음성거래, 자금 익명성,
의사결정과 대출절차의 신속성, 운영 탄력성, 고금리
* 제도금융기구와 연계성 및 업종별 전문화는 2010년대 후 드러나나 아직 미제도화
- ▶ **4대 특수성** : 압도적 외화거래 중심성, 농촌지역에 현물화폐 일상화,
생산적 거래, 여성주도성
- ▶ **북한 사금융시장 유형** :
‘사금융시장이 공금융시장과 분리된 별개의 시장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분리시장(Separate-Markets)**
* 사금융시장이 공금융 시장의 잔여부분에서 형성 및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잔여시장(Residual-Markets)과의 차이, 그러나 분리시장 개념에서 정의하듯, 분리시장 특성을 보인다고 사금융과 공금융
시장이 아무 관계없이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북한 주요 권력기관 내 특수은행들의 작동 양태에서 보여지듯, 두 시장은 서로 경쟁/보완관계로 단
지 수요와 공급이 따로 형성
- ▶ **향후 체계화, 전문화, 분화**: 국가 화폐와 공식금융에 낮은 신뢰도
및 정권의 보수적 금융-경제 정책 등 때문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 문 수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2016. 6. 28.

양 문 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달러라이제이션의 개념
3.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실태
4.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
5.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파급효과
6. 북한당국의 대응
7. 맺음말

1. 머리말

-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강제
 -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
- 북한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화의 보유나 유통이 법적·제도적으로 엄격히 금지
 - 하지만 개인이나 기관·기업소는 너도나도 북한 원화보다는 외화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음.
 - 외화가 없으면 물품 구입을 비롯해 각종 경제활동 수행이 곤란한 상황
-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은 오늘날의 북한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상을 전망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
- 북한에서도 달러뿐 아니라 위안, 엔, 유로 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
 - 특히 북한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은 미국 달러가 통용되는 달러화(dollarization)와 중국 위안화가 통용되는 위안화(yuan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
-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실태를 정리하고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
 - 자료로는 관련 문헌과 함께, 탈북자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

3

2. 달러라이제이션의 개념

- 외화통용 현상은 통상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부름.
 - 미 달러화뿐만이 아니라 유로, 위안을 비롯한 다른 외화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 달러화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세계 기축통화로서 외화를 대표하는 상징성 보유
 - 모든 종류의 외화 통용을 통틀어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로 정착
- 달러라이제이션은 크게 '비공식(unofficial)' 달러라이제이션과 '공식(official)' 달러라이제이션으로 구분
 - 비공식 달러라이제이션은 '부분적(partial)' 달러라이제이션, '사실상의(de facto)' 달러라이제이션
 - 다만 '비공식' 달러라이제이션이 반드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식 달러라이제이션은 '완전(full)' 달러라이제이션이나 '법정(de jure)' 달러라이제이션
- 달러라이제이션은 또한 진행단계/진행범위에 따라 '자산대체(asset substitution)' '통화대체(currency substitution)'로 구분 가능
 - 화폐의 3대 기능(교환의 매개, 회계 단위, 가치 저장) 중 어느 것을 외화가 대체하는가
 - 가치 저장 기능 및 고액 거래의 회계단위 기능의 대체: 자산 대체
 - 교환의 매개 및 소액 거래의 회계단위: 통화 대체
 -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 수준이 낮으면 자산대체 위주, 높으면 자산/통화 대체 모두

4

3.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실태

(1) 화폐의 기능 측면

- 북한에서도 달러라이제이션은 자산 대체에서 출발
 -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일정 규모의 자산은 외화로 보유하려는 경향
 -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북한 원화를 외화를 대체
- 또한 거액 거래에서 회계단위로서의 기능 대체가 발생
 - 북한에서 달러로서의 계산은 주택, 특히 신축 아파트/빌라에서 시작
- 아울러 고가품 거래에서부터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의 북한 화폐를 외화가 대체, 즉 통화 대체 발생
 - 처음에는 주택이, 다음에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외화를 통해 거래
 - 아울러 달러라이제이션이 진전됨에 따라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 종합시장에서의 식량 및 생필품 거래, 즉 소액 거래에서도 외화 사용 증가
-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진전 정도 평가
 - '비공식(unofficial)' 달러라이제이션, '부분적'(partial) 달러라이제이션, '사실상의(de facto)' 달러라이제이션
 - 자산 대체뿐 아니라 통화 대체도 진행 ⇒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은 상당히 높은 수준

5

(2)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수준과 추세

-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의 구체적 실태, 특히 양적 실태에 관해서는 공개된 통계자료 없음.
☞ 이하에서는 두 가지의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양적 실태, 특히 수준과 추세를 살펴보기로 함.
- 첫 번째 설문조사
 - 당초에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426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 그 중 2005-2012년 탈북자 중 유효응답자 926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것
- 설문 당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당 장마당(종합시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도를 기입해 달라고 요청
 - 또한 해당 장마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는 무엇인지 설문
 - 응답결과는 <표 1>과 <그림 1>에 정리
- 북한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은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 이후 급격히 진행
 - 아울러 2009년 이전에도 일정 수준의 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음
- 다만 조사대상 탈북자들의 지역적 편중성이 심하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
 - 전체의 87%가 함경북도와 양강도

6

(2)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수준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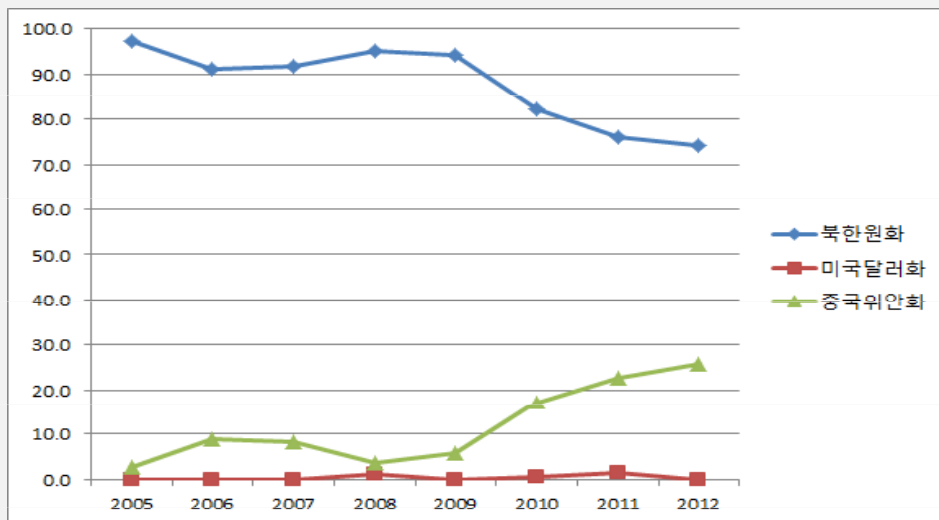
<표 1> 북한 장마당(종합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 (단위: 명, %)

	북한원화	미국달러화	중국위안화	합계
2005년	75 (97.4)	0 (0)	2 (2.6)	77 (100.0)
2006년	72 (91.1)	0 (0)	7 (8.9)	79 (100.0)
2007년	99 (91.7)	0 (0)	9 (8.3)	108 (100.0)
2008년	79 (95.2)	1 (1.2)	3 (3.6)	83 (100.0)
2009년	97 (94.2)	0 (0)	6 (5.8)	103 (100.0)
2010년	143 (82.2)	1 (0.6)	30 (17.2)	174 (100.0)
2011년	209 (76.0)	4 (1.5)	62 (22.5)	275 (100.0)
2012년	20 (74.1)	0 (0)	7 (25.9)	27 (100.0)

7

(2)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수준과 추세

<그림 1> 북한 장마당(종합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 (단위: %)



8

(2)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수준과 추세

□ 두 번째 설문조사

- 2013년에 실시한 탈북자 설문조사
-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탈북한 사람 828명을 추려서 이들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
- 자신의 탈북년도와 탈북직전 거주지역의 장마당(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비율을 조사
- 응답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정리

□ 첫 번째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2009년 12월 화폐개혁 이후의 급격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을 확인 가능

- 특히 2013년에는 중국위안화의 거래비율이 북한원화의 거래비율을 추월
- 또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율도 감소

□ 다만 조사대상 탈북자들의 지역적 편중성이 심하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

- 전체의 3/4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 즉 샘플의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성 존재

9

(2)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수준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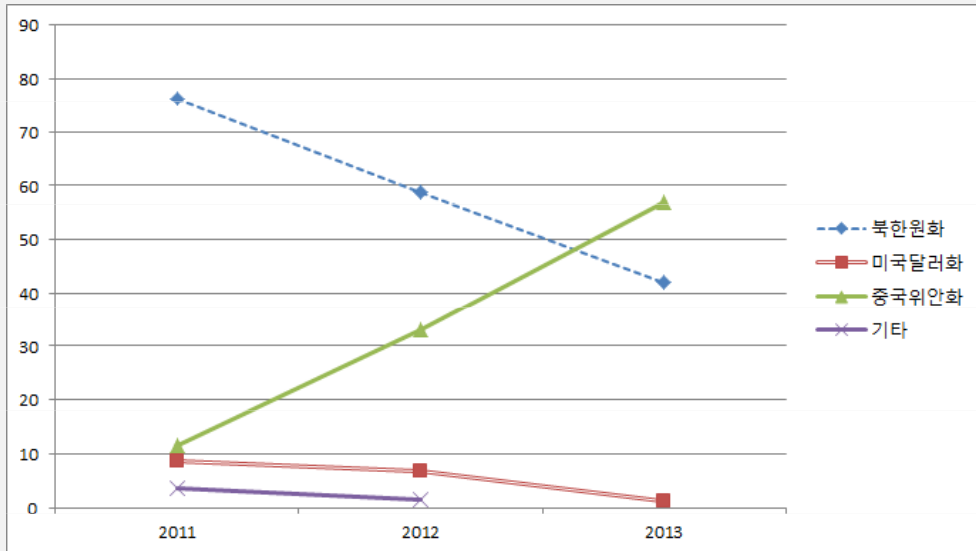
<표 2> 북한 장마당(종합시장) 내 거래 화폐 비율 (단위:%)

	북한 원화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	기타	합계	비고
2011년	76.2	8.6	11.5	3.7	100.0	n=454
2012년	58.7	6.8	33.1	1.4	100.0	n=293
2013년	42.0	1.2	56.8	-	100.0	n=81

10

(2)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수준과 추세

<그림 2> 북한 장마당(종합시장) 내 거래 화폐 비율 (단위:%)



11

(3)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특징

- 북한에서는 (좁은 의미의) 달러라이제이션과 위아나이제이션이 동시에 진행
 - 최근에는 달러라이제이션보다 위아나이제이션이 급격히 진행
- 위아나이제이션의 억제 요인(즉 달러라이제이션의 촉진 요인)
 - 공식적으로 달러화는 태환화폐지만 위안화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따라서 북중무역을 비롯해 대외거래에서 위안화보다는 달러화 사용이 많음.
- 위아나이제이션의 촉진 요인
 -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접경국가의 특성상 위안화가 달러화보다 조건이 양호함.
 - 2008년부터 북중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됨. 중국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의 일환
 - 외화보유시 단속에서의 처벌 측면에서 위안화가 달러화보다 유리
 - 위안화 환율이 달러화 환율보다 낮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 자산 축적에 위안화가 편리
- 국경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달러라이제이션의 진전 정도, 달러화와 위안화의 위상 등에 있어 매우 큰 차이 발생
 - 예컨대 국경지역이 내륙지역보다 달러라이제이션이 더 진전

12

4.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

(1) 외화수요적 요인

-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은 외화수요적 요인, 외화공급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 가능
 - 우선 외화수요적 요인부터 살펴봄.
- 첫째, 인플레이션
 -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은 공식경제의 붕괴 및 암시장 발달의 산물
 - 국정가격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암시장에서의 물가는 계속 가파른 상승세
- 둘째, 물수형 화폐개혁
 - 북한은 건국 이래 모두 다섯 차례의 화폐개혁을 실시(1947, 1959, 1979, 1992, 2009)
 - 2009년에는 구화폐와 신화폐가 100:1 비율로 교환되었으며 교환의 한도도 강력히 제한
 - 주민들에 준 충격의 강도로 보면 2009년의 화폐개혁은 1992년에 비할 수 없이 컸음.
 - 2009년 물수형 화폐개혁은 주민들에게 북한원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
- 셋째,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 달러라이제이션이 많이 진행된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달러를 사용하므로 나도 거래에 참여하려면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 북한의 경우,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강요된 측면도 일부 존재

13

(2) 외화공급적 요인

- 북한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 달러나 위안화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함.
 - 말무역의 성행, 대외무역 종사자들의 외화 반입, 해외 파견 노동자 및 해외 주재원들의 외화 반입, 중국 거주 친척 및 남한 거주 탈북자들의 송금 등
 - 공식적인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광범위한 외화 유입 및 축적 경로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
- 북한의 종합 외화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의 입수 불가능으로 인해 판단하기 어려움.
- 이와 관련, 눈길을 끄는 중국측의 조사 자료가 존재
 - 중국측은 2000년대 중반에 단둥세관 출입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가는 인민폐 유통 규모와 북한에 잔류하는 인민폐 규모에 대한 추정을 시도
 - 2004, 2005, 2006년에 북한으로 유출된 인민폐의 17.6%, 18.4%, 11.4%가 북한에 잔류
- 또한 국내의 어느 연구는 1991년부터 2012년을 대상으로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
 - 북한은 이 기간에 (남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무역을 통해 179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하지만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을 종합적 고려시 오히려 14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
 - 다만 여기서의 외화는 북한 전역에 산재한 것으로서 당국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님.¹⁴

(3) 제도적 요인

□ 첫째,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제도의 와해

- 외환관리 독점과 동전의 양면 관계인 대외무역 독점이 약화된 데 따른 것
- 특히 특권경제 소속 무역회사의 급증 및 특권경제 소속 은행의 등장/확대
- 아울러 외화행표 제도,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 외화상점 제도의 기능 저하

□ 둘째, 기관·기업소의 외화보유 허용

- 북한은 7:1 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에 「외화관리법」 등을 개정, 기관·기업소의 외화보유를 허용하고, '외화의무납부제'를 시행
- 이런 외화관리제도의 변경은 외화보유에서 국가와 기업의 분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

□ 한편 대부분의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경우,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예금 예치 허용 조치가 달러라이제이션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음.

- 합영 은행 등에 대한 외화예금 예치는 허용되었지만 주민들은 은행 외화 예금을 기피

15

5.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파급효과

(1) 부정적 측면

□ 달러라이제이션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구분

□ 부정적 측면에서 가장 큰 것은 화폐발행이익(seigniorage)의 상실

- 현대의 화폐는 화폐의 액면가치 대비 제조비용이 매우 작아서 정부 신규 발행 화폐는 대부분이 정부의 수입이 됨. 화폐발행이익. 그리고 inflation tax.
- 그런데 달러라이제이션이란 경제주체들이 국내화폐 보유를 줄이고 외화 보유를 늘린다는 것. 따라서 화폐발행이익의 크기가 줄어들게 됨. 정부는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됨. 북한은 화폐침전 현상 때문에 상기의 효과 증폭

□ 그런데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의 화폐발행 이익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폐발행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도 함.

- 달러라이제이션에 의해 형성된 비공식적 외환시장이 사실상의 화폐시장 기능을 수행
- 중앙은행을 통해 국영기업에 공급된 북한원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환전되어 수입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함. 즉 북한원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사람들이 신권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암달러상에게 달러로 바꾸어가는 사례

□ 달러라이제이션으로 환율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 증대 우려

- 외화에 대한 수요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빨리 증가. 북한원에 대해 급격한 절하 압력

16

(2) 긍정적 측면

-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국내화폐가 기능을 상실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데, 이 때 외화가 대신 화폐기능을 수행해 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정상화시켜 줄 수 있음.
 - 이 경우 외화는 안정적인 통화가치가 보장되는 화폐로서 경제적 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
- 또한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인해 그동안 민간 부문에 축적된 외화가 화폐의 기능을 일정 정도 수행하면서 생산활동을 위한 자본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
 - 즉 경제위기 이후 붕괴되었던 자금순환구조를 일부 복원하는 것, 즉 북한 내에서 부분적이지만 '돈을 돌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 '금고'에서 '금융'으로 전환.
 - 대표적인 사례가 김정은 시대 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아파트) 신축
- 한편 달러라이제이션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달러라이제이션이 급격히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물가를 크게 상승시키지만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는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달러라이제이션의 급격한 진행으로 북한 원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 북한당국의 통화증발 억제 또는 감소. 또한 달러라이제이션의 확산으로 전체 유통 통화 중 국내 통화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 국내 통화증발이 전체 물가상승에 주는 영향력이 감소 가능.
 - 2013년 이후 북한의 물가 안정 원인의 하나

17

6. 북한당국의 대응

-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적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대응 역시 양면적, 모순적
- 당국은 외화를 당국에 집중시키고, 민간의 외화 사용을 억제하려고 하며, 특히 주기적으로 물리적인 외화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고 외화사용에 대한 단속조치를 실시
 -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달러라이제이션 억제 노력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당국은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외화 사용 억제 등을 통하여 외화통용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을 활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
 - 재정능력이 약화된 북한당국은 외화 흡수를 주요한 재정 확충 수단의 하나로 활용
 -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외화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화로 거래되는 시장을 스스로 창출하여 외화를 흡수하려고 하고 있음. 휴대폰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
 - 더욱이 북한당국은 외화만으로 이용 가능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수영장 등 국내의 각종 외식/레저/오락 서비스 시설을 계속 늘려가며 중간층 및 부유층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고자 하는 이른바 '국내의 외화별이사업'을 사실상 진두지휘

18

7. 맺음말

□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경제와 당국의 정책수행에 양면적 영향

- 한편으로는 국가의 통화정책 수행 능력, 나아가 경제전반의 관리 능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공식경제의 작동,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북한당국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억제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러라이제이션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딜레마적 존재

□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 특히 2009년 화폐개혁 이후의 급격한 진행은 이에 상응하는 외화의 공급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외화수급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

□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만의 현상이 아니라, 남미, 동남아 등 많은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경제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흔하게 나타났던 현상

- 오늘날의 북한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국경제, 그리고 개발도상국경제의 경험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임을 시사

□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은 향후 체제전환 및 남북경제통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 예컨대 달러라이제이션 현상, 인플레이션, 환율하락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이라는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 면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보다는 베트남에 가까움.
- 북한의 미래 설계시 중국모델뿐 아니라 베트남모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기울일 필요¹⁹

감사합니다.

토 론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금융의 변화 수준 및 발전 가능성 평가

문성민(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

북한의 금융은 크게 보면 제도와 제도 이외의 현실 두 측면 모두에서 구소련과 유사한 사회주의 금융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달리 말하면, 현재 상태에서 평가한 북한 금융의 발전이 시장경제의 저개발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그 역할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최근까지의 북한 금융제도 변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달러라이제이션과 비공식 사금융의 확산 등을 종합하고, 이를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전 금융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제도 이외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북한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금융도 비록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낮은 수준의 변화이지만 나름대로의 변화를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에는 계획화 체계를 국가 재정에서 은행 신용 중심으로 변경하였으며¹⁾, 2000년대 중반에는 이원적 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고, 2010년대에는 선불카드 확산 등 비교적 시장친화적인 제도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이후의 변화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못해 판단이 다소 이른 측면이 있어 2000년대까지의 변화를 대상으로 판단해 보면, 그 변화는 여타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내 개혁에 비해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신용계획화체계로의 변화는 계획경제의 고질적 문제중 하나인 연성예산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체제내 개선사항으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진되었던 변화이며, 북한에서는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원적 은행제도는 중국,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본격적인 체제전환 이전인 1980년대에 추진되었던 변화였다. 더욱 주의할 점은 대부분 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저축은행에 일반 주민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데 반해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은행에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은 금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도 이외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비공식 사금융과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공식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북한 원화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통화당국의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 2009년까지의 비공식 사금융과 달러라이제이션의 확산이 북한 금융의 질적 수준을 높이지 못하였으며, 경제의 성장·발전에도 큰 도움이 못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재정계획화체계는 기업의 필요자금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써 상환의무도 없고 지원을 받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예산제약이 약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재정 대신 은행 대출로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상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연성예산제약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북한에서는 신용계획화체계로의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2010년 이후의 북한 경제는 제도 밖의 영역, 즉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의도에 부합하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 당국의 단속 없이 암묵적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예를 들면, 북한 시장화는 기존에 도소매, 유통 등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된 초기 형태에서 건설, 소비재 생산 등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질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비공식 자금용도 달러라이제이션과 시장화 진전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즉 시장화의 질적 변화, 비공식 자금용의 확산, 일정 수준 이상의 달러라이제이션 지속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적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나간다면 북한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2012년 이후 달러라이제이션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 물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풍부한 외화유동성과 상당 수준의 달러라이제이션 상태 지속은 비공식 자금용의 확산과 시장화의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비공식 자금용에서 사용되는 주요 통화인 외화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돈장사꾼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며, 이들 외화를 계획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은 시장화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북한당국이 외화를 흡수하기 위하여 외화 선불카드 도입, 외화 택시 및 외화 편의점 도입, 휴대폰 판매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동시에 돈주들과 국영기업의 합작 사업을 인정해주기 시작한 것은 시장경제활동이 유통 및 도소매 수준에서 건설 및 소비재 생산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 자금용의 확산은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시장화의 양적 확산 및 질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제가 북한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지속 여부는 대북제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재의 영향이 강력한 정도로 오랜 동안 지속된다면, 외화유동성 공급이 축소되고 비공식 자금용 시장과 외화를 이용한 돈주들의 투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보다는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켜 나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금융의 실태

김영희(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1세션 ‘북한 금융의 실태’에 대한 발표에서 ‘북한 금융기구의 종류와 역할’, ‘북한의 사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토론
 - 두 발표문은 모두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북한의 금융기구와 역할, 사금융 시장의 형성과 유형·실태·특징을 알기 쉽게 이해하는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 금융과 사금융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다소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토론에서는 정보부족으로부터 발생한 발표 자료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려함

□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 북한은 기관·기업소·단체들의 대금결제를 무현금결제에서 현금결제 방식, 다시말해 무현금유통에서 현금유통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
 - 최근 기업체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같은 새로운 기업경영방식에 의해 시장을 통한 기업활동 즉 현금거래 확대
 - 원자재 생산기업의 경우도 현금결제를 통한 원활한 자금유통을 위해 기관·기업소간 거래에서 현금거래방식 선호
 - 중앙은행은 내화 취급에서 내화와 외화를 동시 취급 하는 등 역할 확대
 - 기업은 중앙은행에 외화 돈자리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 지점의 통화조절과 외화 취급
 - 내화카드 ‘전성’ 도입
 - 대체로 군인, 대학생 등 타 지역에 돈을 보낼 때 사용
- 금융제도 또는 금융의 역할 변화는 북한의 기업운영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나 북한은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그러나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아주 긍정적

□ 사금융 시장

- 발표자는 사금융의 발단이 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는데, 80년대 초중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외화상점의 설립과 연관된다고 봄
 - 사금융은 환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 주민들이 외화상점의 물건 구입을 위해 원화와 '외화와 바꾼돈표' 교환이 필요, 이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사금융 시장이 등장
 - 그 이전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바꾼돈표를 외국인 전용 외화상점에서 직접 사용하는데 그침
 - 사금융 시장이 형성되면서 외화를 보유한 사람들은 사금융 시장에 외화를 공급하는 역할 수행
- 사금융 시장이 점차 체계를 갖춰가고 있음
 - 무담보에서 담보(주택임사증, 생산수단, 월 소득 등)에 의한 대부로 전환
 - 대부금액에 따른 이자 차등 적용, 대부자금이 많을수록 이자는 낮게 책정, 대체(2000달러)로 월 10%이나 그 이상인 경우는 4~7%, 3만달러까지도 대부 가능
 - 남한의 은행간 콜과 유사한 돈주간 거래 형성, 당장 현금이 필요한 돈주가 다른 돈주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 지급하는데 이들 거래는 돈주와 여타 수요자의 대부이자보다 싸게 거래
- 사금융 시장의 유형에 대한 의견
 - 발표자료에서는 사금융의 유형을 △농촌의 현물고리대: 개인과 농장원 간 거래 △도시의 고리대금: 상인간 거래 및 개인간 거래 △권력층 대부: 고위직 및 은행과 기업간 거래 △기업대부 및 투자: 개인과 기업간 거래 △환전: 환전상과 개인·기업간 거래 △송금유형 ①개인과 개인간 송금거래 ② 북중간 물자대금결제 대행 : 국내외 개인-기업간 거래 ③ 국내물자대금결제 대행: 국내 개인-기업간 거래
 - (△권력층 대부: 고위직 및 은행과 기업간 거래)무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들, 통일발전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기관·기업소들은 원칙적으로 대부가 가능(외화관리법 22조)한데 불가능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확인 필요

○ 계층균열 관련

- 1차 계층균열 2002-2003년, 2차 계층균열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201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 특히 화폐개혁이후 북한 시장경제를 작동하던 돈주, 소매, 도매상인, 차판장사 등이 연결되어 있던 거래관계가 깨지면서 재구성
- 화폐개혁시 돈주들은 달러나 인민폐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주로 남았고 사금융의 중심에 서있었음, 때문에 자료에 있는 계층균열은 다시 확인할 필요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토론문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북한내 외화통용현상 또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은 현재의 북한경제의 작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현상인 것은 분명함.
- 2009년 몰수형 화폐개혁과 북한원화의 가치폭락으로 북한원화는 외화로 본격적으로 대체되면서, 시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북한에서는 이제 자국 화폐인 원화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으로 파악됨. 시장시스템 진화 과정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달러는 지금과 같은 고강도의 제재 국면 아래에서 안전자산으로서 더 선호되고 있어 북한 원화 배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음. 과거 사례를 보면 내부 불안감이 커질수록 달러를 선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달러는 중국 위안화에 비해 몰래 보관하고, 운반하기에 편리한 데다 환율변동성에 따른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흥미로운 점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반미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주민들 속에서는 오히려 미국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임. 달러 선호 경향은 북한당국이 벌이고 있는 반미선전 캠페인과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외화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급상승은 이뤄지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외화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특히 북한 당국은 외화 통용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고, 오히려 외화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라이제이션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현상으로 판단됨.
- 북한 화폐의 가치하락은 ▲북한당국의 정책일관성 결여 ▲북한정세 불안정 ▲화폐개혁 후 통화팽창 ▲북한사회의 외화사용 빈도 증가 ▲상인들의 환율 추가상승 기대심리- 북한 화폐 가치의 추가적 하락 우려, "화폐개혁 이후 화폐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이 원인이 되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당국은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 등 외화에 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자국화폐(북한돈)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여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달러라이제이션’ 추세를 되돌리고,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음.
- 통화는 국가경쟁력의 상징이고, 국가의 주권이고 권위이기도 함. 외화 의존에 대한 심화는 국가 권위의 추락, 빈부 격차 확대 등을 초래함으로써 북한 지도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또한 북한 당국이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좁히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물론 지금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짐. 공식금융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부족,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의 은행거래 기피, 공식 금융과 사금융 사이의 현격한 이자율 차이 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화정기예금, 외화 충전식 카드(나래카드), 외화상점의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등의 조치들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
- 소수의 연구자들이 오래 전부터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에 주목을 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해왔고, 이에 따라 외화통용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나 사실 달러라이제이션이 체제전환과 체제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는 여전히 부족해 보임.
-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가 달러라이제이션을 도입하면 사실상 독자적인 화폐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물가와 통화가치가 안정됨. 자연 투기적인 요인이 줄어들면서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특히 개도국들은 글로벌 추세에 적극 부응하고 외자도입이 유리해지는 이점도 기대됨.
- 반면 정치,경제적으로 예측돼 정체성(identity)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음. 독자적인 화폐발행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일종의 조세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화폐발행차익(seigniorage)이 소멸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됨.
-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재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달러라이제이션이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있음.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달러라이제이션 및 사금융의 부작용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임.

- 즉 외화 경제권의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가 환수하여 원화 경제권의 허약한 부분을 보전하는 소득 재분배 조치를 국가가 직접 개입보다는 금융 수단을 통해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주목. 북한이 여전히 국영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 경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라이제이션 정책이 경제 주권 침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 세션

북한 금융의 과제

중국의 금융개혁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서 봉 교



중국의 금융시스템 변화

2016. 6. 28
수출입은행 발표자료

동덕여대 중국학과 서봉교
sbongk@dongduk.ac.kr

1장. 체제이행과 금융의 변화

- ▶ '49년~'78년 : 사회주의 계획경제
 - ▶ **단일은행제도(mono banking system)**
 - ▶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PBoC: People's Bank of China**)
 - 재정부와 국가계획위원회의 자금창구
 - ▶ 3위 1체의 계획경제 시스템
 - 요소가격 왜곡 / 계획 배분 / 생산수단의 국유화
 - ▶ 위안화 환율의 고평가

1장. 체제이행과 금융의 변화 (2)

▶ '78년~'93년 : 시장경제 도입과 계획금융의 변화

▶ 점진주의와 이중 시스템적 접근(双軌制: dual-track)

□ 구소련과 동유럽 : 전면적 민영화를 통한 급진적 체제 이행

▶ 1) 79년~83년 : 농촌개혁 위주

▶ 2) 84년~88년 : 도시개혁

□ 국가예산에서 은행대출로 전환(뽀가이따이; 拨改贷)

□ 전업은행(专业银行)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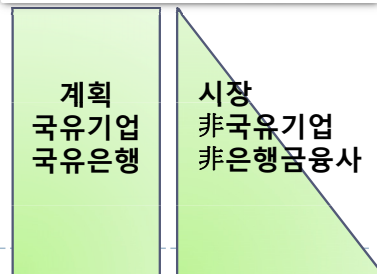
□ 비은행 금융사

▶ 도시, 농촌 신용조합

▶ 신탁투자회사

▶ 재무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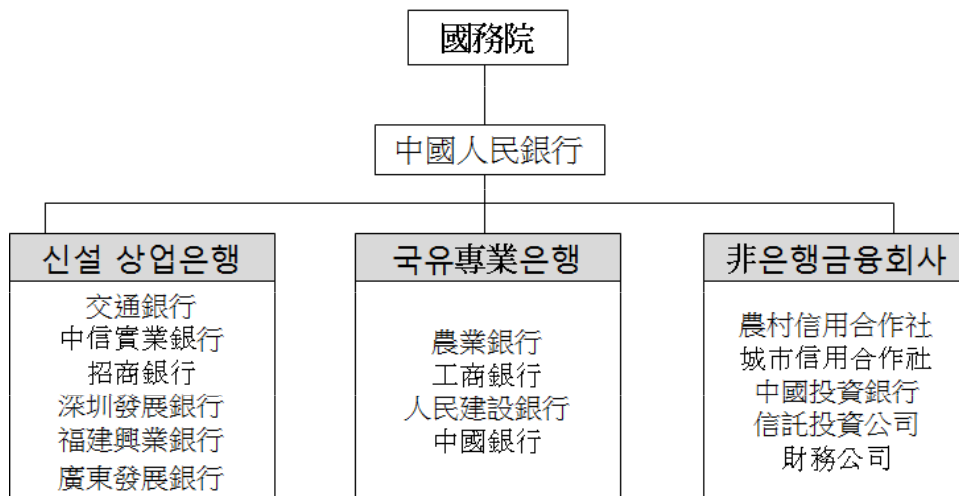
점진적, 이중 시스템 개혁 개념도



▶ 3

1장. 체제이행과 금융의 변화

중국의 금융 시스템 개요 (1988년 기준)



▶ 4

1장. 체제이행과 금융의 변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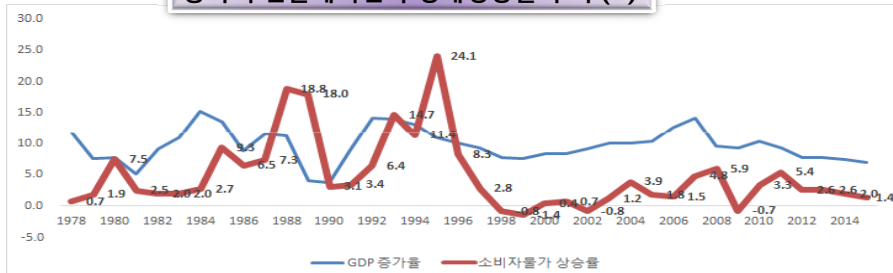
▶ 3) '89년 톈안먼 사건

- 이중 시스템적 개혁의 부작용 → 부정부패와 인플레이션
 - ▶ 지방정부의 인민은행에 대한 영향력 / 연성예산제약
- 강력한 긴축 → 신탁회사, 도시신용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 4) '92년 남순강화

- 개혁개방 재추진
- 주식시장의 도입 : 국유기업 재산권 개혁의 방안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추이 (%)



▶ 5

2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금융의 발전

▶ 사회주의 + 시장경제

▶ 1) 외환제도 개혁 ('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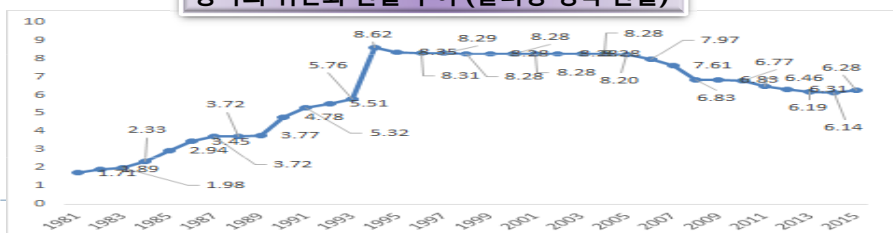
- 단일환율제도, 외환거래 자유화 → 수출확대

▶ 2)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 3) 정책은행 설립 : 상업은행과 정책대출의 분리

-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 중국농업발전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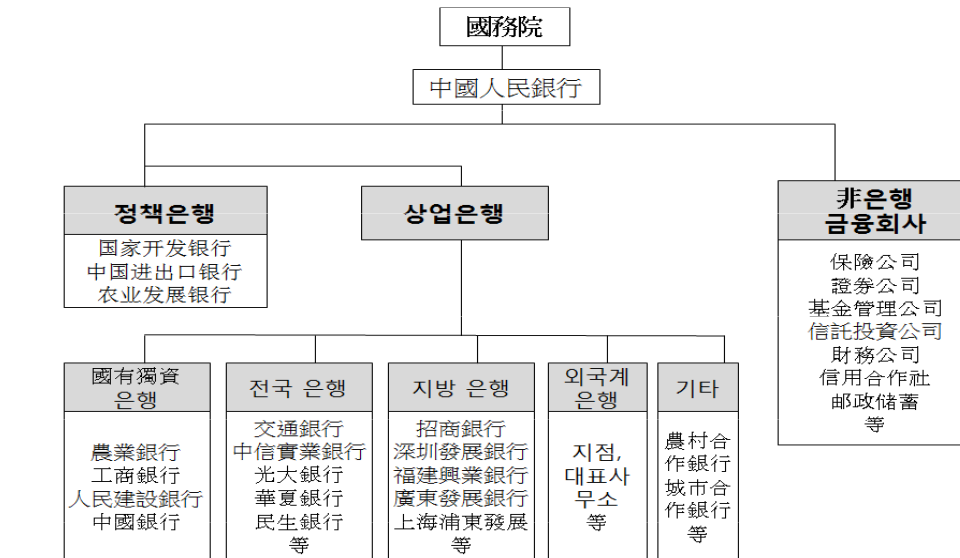
중국의 위안화 환율 추이 (달러당 명목 환율)



▶ 6

2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금융의 발전(2)

중국의 금융 시스템 개요 (90년대 말 기준)



▶ 7

2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금융의 발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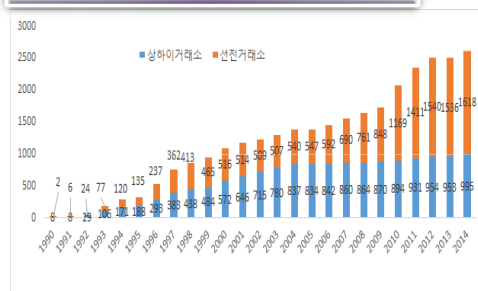
▶ 4) 상업은행의 발전

- 국유독자 / 전국 단위의 은행 / 도시상업은행 / 농촌상업은행

▶ 5) 非은행 금융산업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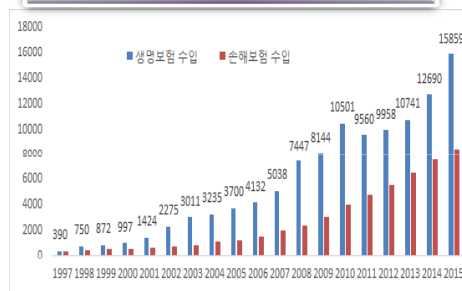
- 주식시장의 발전
- 보험산업의 발전

주식시장 상장회사 수 추이 (개)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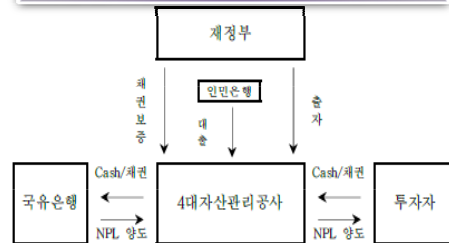
중국 보험료 수입 추이 (억 위안)



2장. 동아시아 위기와 금융부실의 조정

- ▶ 1) 동아시아 위기('97년)와 중국 국유기업 개혁
 - 금융기관 대출 시 리스크 평가 문제 : 정부의 금융기관 암묵적 보호
 - 부실 국유기업 문제가 은행들의 부실대출로 누적
 - 과감한 국유기업 구조조정 : 적자 국유기업의 70%가 흑자로 전환(2000년)
 - ▶ 출자전환과 정리해고
- ▶ 2) 자산관리공사(资产管理公司:AMCs)
 - 국유독자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 창청 (长城), 신다 (信达), 화롱 (华融), 동팡 (东方)
 - ▶ 국유은행 대출 총액의 18%
 - ▶ 출자전환, 장부가 인수
- ▶ 3) 금융감독 시스템의 정비
 - 금융업권간 방화벽 강화
 - ▶ 자산운용업 정비
 - 은행위/ 보험위/ 증감위 : 분업감독
 - 광둥국제신탁회사 등 파산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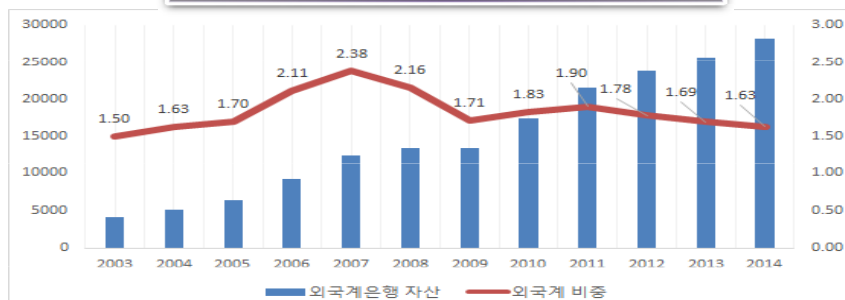


▶ 9

3장.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 ▶ 1) WTO 가입('01년)과 점진적 금융시장 개방
 - 개방 이후 외국계 금융사들의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
- ▶ 점진적 개방 : 중국정부의 주도권
 - 유예기간 최대한 확보 / 부분적 개방 / 핵심 이익 고수
 - ▶ 외국계 지분 생명보험 50%, 증권사 33%, 자산운용사 49%
 - ▶ M&A 원천적으로 차단 (25%)

외국계 은행의 중국 시장 점유율 추이 (억위안, %)



▶ 10

3장.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2)

▶ 2)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혁 → 경쟁력 확보

- 중앙혜이진공사(中央汇金有限责任公司: '03년)의 출자
- 해외 전략적 투자자(foreign strategic investors)의 지분투자 유치
- 주식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

▶ 3) 금융지주회사로의 재편

- 외국계 금융사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

▶ 4) 주식 非유통주 개혁(股权改革): '05년

- 불완전한 개혁

▶ 5) 관리변동 환율제도의 도입 ('05년)

-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 절상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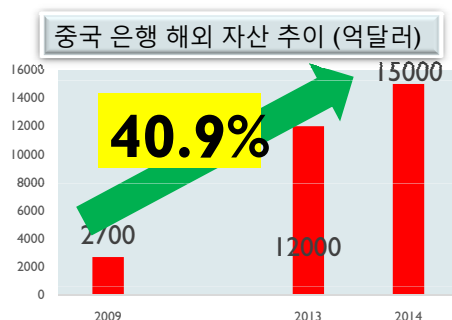
4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금융의 국제화

▶ 1)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금융사의 국제화

- 위안화의 SDR 편입: 3대 통화
- 중국 은행 해외자산 규모 연평균 증가율 40.9%

▶ 2) 非금융 모바일 플랫폼, 핀테크 민영은행 혁신

- 텐센트 웨이중은행(微众银行: WeBank) / 알리바바의 아리온라인은행(阿里网商银行: MYbank)



SDR 편입 통화 비율 (%)		
	현행 (%)	2016년 10월 이후(%)
달러	41.9	41.73
유로	37.4	30.93
위안화	0	10.92
엔화	9.4	8.33
파운드화	11.3	8.09

▶ 12

[참고] 알리바바의 핀테크 금융혁신 경과

▶ 전자상거래 결제 기반 → 금융그룹으로 발전

- '99년 마윈(馬雲) / B2B 阿里巴巴 → '03년 개인 淘宝 → '04년 支付宝
 - 알리페이(支付宝) + 工商银行 ('07년) : 알리바바 거래 DB 은행에 제공, 대출중개
- '09년 알리파이낸스(阿里金融) 독립 자회사 플랫폼 활용 은행 대출 중개
- '10년 알리바바 소액대출회사(浙江省 小额贷款公司) 설립 대출 중개 (은행결별)
- '12년 온라인 손해보험회사(众安在线保险) : 전자상거래결제관련
- '13년 위어바오(余额宝) 텐홍(天弘) 자산운용사 지분 인수
- '14년 9월 인터넷은행 시범 → '15년 6월 阿里网商银行 : Mybank 오픈
 - ▶ 온라인 신용카드(中信銀行 网上信用卡)
- '15년 11월 德邦증권사 인수 (75%)
- 확장 가능성
 - ▶ 신탁 : 三潭金融
 - ▶ P2P : 招财宝
 - ▶ Equity CrowdingFund
- 글로벌 금융그룹화
 - ▶ 한국 Kbank, 인도 Paytm 등에 지분투자
- **물류 + 금융 + 문화(요쿠투도우) → 글로벌 융합 플랫폼**



▶ 13

5장. 시사점

▶ 점진적 체제 이행과 급진적 체제 이행

- 체제이행에는 어떤 형태이든지 비용이 필요
- 낮은 비용의 체제이행 → 누구의 입장에서 낮은 비용 ?

▶ 부실기업 구조조정

- 언제나 부실한 기업은 있다 → 구조조정 비용이 높으면 시스템 리스크
- 구조조정 < 재발방지 시스템 정비

▶ 저성장 시대 → SOC 투자 금융사업의 부상

- 고성장 시대와 달리 저수익 SOC 투자도 매력적
- 중국의 '一帶一路' → 중국기업 해외진출과 GVC 재구성의 지원

▶ 금융의 본질 : 실물 경제 성장의 지원

▶ 14

감사합니다
Q&A

▶ 15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전망

한양대학교 교수
장 형 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과 전망



장 형 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 1** 북한개발 자금지원 관련 국제금융기구 개요
 - 2** IMF와 세계은행그룹 가입 조건과 절차
 - 3** ADB와 AIIB 가입조건과 절차
 - 4**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망

국제금융기구(IFIs) 가입의 포기할 수 없는 이점

-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장기, 저리의 개발자금 수혜
 - 대부분의 개도국은 시장금리로 제공되는 상업차관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해도 원리금 부담이 상환능력 초과
- 가장 중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양호한 협력관계 구축이 국제민간부문 투자의 선결조건
 - 본격적인 국제민간투자에 국제금융기구의 O.K. 사인 필요
 - 또한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기도 함
 - IMF와 정책협의 양호 + IMF 프로그램 성공적 수행 → 파리클럽(Paris Club) 외채감축 대상

2

북한 가입 관련 국제금융기구(IFIs)

- 국제통화질서를 관장하는 국제통화기금(IMF)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기개발금융을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은행(MDB):
 - 글로벌개발은행: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 지역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3

국제통화기금(IMF) 개요

- 세계은행과 함께 미국 주도의 브레튼우즈체제의 핵심
- 188개국 가입, UN 회원국 중 북한, 쿠바, 모나코, 안도라, 나우루 등 5개국만 미가입
- 모든 국가의 국제사회 편입의 첫단계
- 회원국에 대한 경제 및 금융정책 감시, 정책권고
- 회원국의 외환위기시 긴급자금지원(스탠바이협약, 확대금융제도)
- 개발도상국에 대한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 기금을 통한 구조조정 자금지원 – 확대신용지원금융(ECF)

4

IMF의 자금지원: 스탠바이협약과 ECF

	스탠바이협약(확대금융제도 적용)	확대신용지원금융(ECF)
기능	단기적인 국제수지악화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한 자금지원	저소득 개발도상국가에 양허성 자금지원
인출한도	IMF 쿠퍼의 435% (+α) 연간 쿠퍼의 145%	IMF 쿠퍼의 225% 연간 쿠퍼의 75%
상환기간	4년 6개월 ~ 10년	5년 6개월 ~ 10년
이자율	SDR금리+100bp 적용(현재 1.05%), 지원금액이 쿠퍼의 187.5% 이상이면 200bp, 쿠퍼의 187.5% 이상이 51개월 이상 지속되면 300bp 가산금리 부과	현재 0% (2016년 말까지)

5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개요

-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IMF와 함께 브레튼우즈 IFI, 중소득개발도상국에 대한 중장기개발금융 제공
- ❑ 국제개발협회(IDA) – 1960년 빈곤국 지원을 위해 창설
- ❑ 국제금융공사(IFC) – 1956년 (회원국 정부 보증 없이도)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 1988년 개발도상국 투자시 비상업적(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
- ❑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 1966년 국제투자 분쟁을 조정 중재 기능; 2012.11.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중

6

세계은행(World Bank)과 개발자금지원

- ❑ 세계은행 = IBRD + IDA
- ❑ 거시경제 외 다양한 분야 지원: 농업, 교육, 금융, 교통, 통신, 재정, 보건의료, 빈곤층, 수자원, 환경 등
- ❑ 개도국의 1인당 소득, 국가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IBRD-only, IDA-only, Blend 국가로 크게 구분
- ❑ 2012년 기준 1인당 소득 1,175 달러(IDA 가능), 6,925달러(IBRD 졸업)가 구분선
- ❑ 소규모 도서국가, 분쟁국 등 국가신용도가 매우 낮은 국가는 1,175달러를 넘더라도 IDA의 자금지원 수혜
- ❑ 소득이 1,175달러 이하이더라도 국가신용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IDA 자금지원과 IBRD 자금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음

7

IBRD와 IDA 비교

	IBRD	IDA
지원대상국	2012년 기준 1인당 GNI 6,925달러 이하	2012년 기준 1인당 GNI 1,175달러 이하
지원형태	차관, 지분참여, 지급보증, 공공/민간부문 가능	양허성 차관, 무상지원, 공공부문만 지원
차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기간, 상환기간,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 (IBRD Flexible loans) - 금리: 현재 3~4% - 상환기간: 30년 이하, 주로 12~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무이자 (단, 연 0.75%의 수수료 부과) - 또는 무상지원 - 상환기간: 25~40년(거치기간 6~10년 포함)

아시아개발은행(ADB) 개요

- 1966년 아시아지역의 국제개발은행으로 설립
- 67개 회원국, 일본과 미국이 공동 최대주주로 주요 의안에 대한 공동거부권, 마닐라에 본부
- 일반재원(OCR)과 아시아개발기금(ADF)에 의한 양허성 자금지원
- 융자조건은 OCR은 IBRD, ADF는 IDA와 비슷
- ADF-only(A 그룹), Blend(B 그룹), OCR-Only
- 일본 주도, 빈곤감축에 초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개요

- 2016년 중국 주도로 아시아지역의 인프라개발을 위해 설립
- 57개 회원국, 중국 단독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
- 러시아가 아시아 역내국으로 분류되어 AIIB 제3위의 지분 –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 빈곤감축보다 ‘부의 증진’ 강조(협정문 제1조 제1항)
- ‘특이하게도’ AIIB 이사회는 ‘비상주(non-resident)’ 이사회로 출범 – 중국인 총재를 중심으로 한 총재단이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 행사 가능한 체제
- 세계은행그룹의 IBRD, IDA, IFC, MIGA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ADB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임
- ADB와 협조융자(co-financing)로 카자흐스탄에 대한 인프라개발 사업 참여 예정

10

IMF 가입조건? 전망?

- 일각에서는 IMF 가입 전에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주장
- 명시적인 가입조건은 없음. 다만 가입시 쿼터(quota)를 산정하기 위한 외환보유고, 국민소득, 무역액 등은 제출 필요
- 가입 전에 경제실태조사는 하지만 주요통계의 정확성이나 통계제출의 성실성 등이 가입의 전제조건이 된 사례는 없었음
- 구 소련 붕괴 후 신규 가입 체제전환국의 경우 IMF 가입 신청시 기초적 통계 작성도 못하는 상태
- IMF 상임이사회가 가입을 추천하면, 총회는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가입국이 참가한 (서면)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 승인
- 투표권 1/3 이상인 미, 일, 서유럽만 투표 불참해도 가입불가

11

세계은행(그룹) 가입조건? 전망?

- IBRD 가입자격은 IMF 회원국에만 주어지며,
- IDA, IFC, MIGA 가입은 IBRD 회원국에게만 주어짐
- IBRD와 IDA에 각각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가입국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
- 실제로 IMF 가입심사를 통과하면 IBRD, IDA 가입은 통과 의례
- IMF, IBRD의 지분 구조 상 미국, 일본, 유럽국가의 지지가 없으면 북한의 가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

12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주요국 투표권 비중(%)

순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1	미국	16.80	미국	15.76	일본	12.84
2	일본	6.26	일본	7.30	미국	12.75
3	중국	6.19	중국	4.72	중국	5.48
4	독일	5.41	독일	4.27	인도	5.39
5	프랑스	4.10	프랑스	4.00	호주	4.95
6	영국	4.10	영국	4.00	캐나다	4.50
7	이태리	3.07	인도	3.10	인도네시아	4.40
8	인도	2.68	러시아	2.95	대한민국	4.35
9	러시아	2.64	사우디	2.95	독일	3.78
10	브라질	2.26	캐나다	2.59	말레이시아	2.49
11	캐나다	2.26	이탈리아	2.57	필리핀	2.21
12	사우디	2.05	네덜란드	2.04	프랑스	2.17
13	스페인	1.96	스페인	1.97	파키스탄	2.05
14	멕시코	1.83	브라질	1.87	영국	1.94
15	네덜란드	1.79	대한민국	1.68	이탈리아	1.75
16	대한민국	1.76	벨기에	1.60	뉴질랜드	1.53

13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조건? 전망?

- ADB 가입조건은 아시아 역내국의 경우 UN 회원국
- 총회에서 총 투표권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2/3 이상 가입국의 찬성이 필요
- ADB 투표권 25.59% 점유하고 있는 일본(12.84%)과 미국(12.75%)만 반대하면 북한의 ADB 가입은 원천 봉쇄
 - 중국(5.48%), 인도(5.39%), 호주(4.95%), 캐나다(4.50%), 인도네시아(4.40%), 한국(4.35%) 등이 주요 주주
- ➔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IMF, IBRD, ADB 등에서 북한의 가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
-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관심

1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조건? 전망?

- AIIB는 ‘특이하게도’ 협정문에 창립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향후 세계은행의 IBRD 또는 ADB회원국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는 조항
 - 이 조건 충족 시, 총회에서 회원국 1/2 이상의 찬성과 투표권 1/2 이상의 찬성으로 신규 가입국 승인
- ➔ 북한은 원천적으로 가입 불가능
- ➔ AIIB 가입을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IMF, IBRD에 먼저 가입 필요
- 중국이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문제 해결에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1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비회원국 지원 조건

- AIIB 협정문에는 ‘특이하게도’ 비회원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총회의 (서면) 투표에서 에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과 투표권 3/4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함을 명시
- 그런데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only if) 가능하므로, 오히려 다른 국제금융기구보다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이 더 어려움
- 세계은행은 신탁기금(Trust Fund) 설립을 통하여 세계은행 가입이 임박하거나 “특별한 지원 이유가 있는” 비회원국에 수차례 자금지원 사례
- 중국의 의도된 기획 작품?

1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주요국 투표권 비중

순위	아시아 국가	투표권	순위	역외 국가	투표권
1	중국	26.06%	1	독일	4.15%
2	인도	7.51%	2	프랑스	3.19%
3	러시아	5.93%	3	브라질	3.02%
4	대한민국	3.50%	4	영국	2.91%
5	호주	3.46%	5	이탈리아	2.49%
6	인도네시아	3.17%	6	스페인	1.79%
7	터키	2.52%	7	네덜란드	1.16%
8	사우디아라비아	2.47%	8	폴란드	0.98%
9	이란	1.63%	9	스위스	0.87%

17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망과 중국의 선택

- 북한은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먼저 **IMF**에 가입을 신청하여야하며, 이를 우회하여 **ADB**나 **AIIB**를 먼저 노크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향후 미국/일본이 **AIIB**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에 배정할 지분과 이사 자리 확보를 위한 자본금 특별증액과 함께 이사회 그룹 배분을 해야함
- 이 경우 협정문을 개정할 계기가 마련되므로 최대주주인 중국의 선택에 따라 **AIIB** 가입 조건 또는 비회원국 지원 조건이 수정될 개연성

18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19

북한 금융개혁의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 덕 룡



북한의 금융개혁과제

2016. 6

윤 덕 룡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 차

- I. 서론
- II. 북한의 금융분야 제도 개혁
- III. 북한의 금융개혁 평가
- IV.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 V. 결론: 북한 금융개혁의 도전



I. 서론



I. 서론: 문제제기

- 북한내 제도적 충돌: 북한은 2002년 7.1 조치 이후 소비분야에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면서도 계획에 의한 경제정책 고수
- 시장의 자율기능 vs.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간의 mismatch 발생
- 금융은 대표적인 mismatch 분야로 금융이 수행해야할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의 금융은 자금 중개기능이나 자금의 가격결정 기능, 금융거래의 위험 관리 등에 실패하고 있음.
- 그 결과 사적 자본거래의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 달러라이제이션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
-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있으며 북한당국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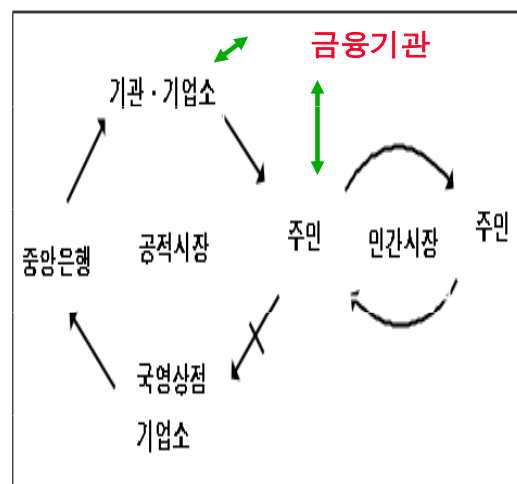
II. 북한의 금융분야 제도 개혁



II. 북한 금융분야 제도개혁

1. 금융개혁의 필요성

- 1) 국가 예산부족 문제
- 2) 인플레이 압력의 지속
- 3) 경제계획과 시장간 제도적 불일치문제





〈표 1〉 북한의 금융관련 법제도 정비

제정시기	관련법
2003년 3월	회계법
2003년 6월	화폐유통법
2004년 4월	재정법
2004년 9월	중앙은행법
2005년 7월	국가예산수입법
2005년 9월	보험법
2006년 1월	상업은행법
2006년 10월	자금세척방지법

* 관련법의 구체적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정보내 주요법령에서 참조: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11>.



7



II. 북한 금융분야 제도개혁

2. 법제도 개혁의 주요내용

- 회계법, 화폐유통법: 제도적 정비
- 재정법: 재정지원대상을 분류하여 재정부담을 축소하려는 시도
 - 금융기관의 역할 강조: '예산제기관'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 대부활용
- 중앙은행법: "화폐가치와 환율을 안정시키도록" - 통화 및 환율정책 담당
 "금융기관의 설립승인과 해산, 통합, 감독통제" - 은행의 은행
- 상업은행법: "예금, 대부, 결제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 분리
- 국가예산수입법: 국가재정 확충이 목적
- 보험법: 일반 금융업무를 중앙은행에서 분리
- 자금세척방지법: "비법적인 자금, 재산의 조성과 유통을 막고 금융체계의 안정보장에 이바지 "



8



III. 북한의 금융개혁 평가



III. 북한의 금융개혁 평가

1. 금융관련 법제도 변화에서 나타난 금융개혁의 방향성
 - 1)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
 - 2) 재정과 금융의 분리
 - 3) 기타 금융기관의 도입
 - 4) 회계 및 금융감독 규정 도입



III. 북한의 금융개혁 평가

〈표 2〉 중국의 금융개혁과 북한의 금융개혁 방향

중국의 주요 금융개혁	북한의 금융관련법 규정	
중앙은행 · 상업은행의 분리	o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중앙은행 · 기타 금융기관의 분리	o	보험법
상업은행 · 정책은행의 분리	x	규정 부재
자본시장 도입	△	채권규정만 존재
민간금융기관 설립허용(자유화)	x	규정 부재
금융기관 사유화	x	규정 부재
인프라 개선	o	전산화, 나래카드 도입
회계제도 확립	o	회계법개정

자료: 윤덕룡 (2013), p. 26. 수정보완.



III. 북한의 금융개혁 평가

2. 금융관련 법제도 변화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

- 1) 정책금융기관의 도입
- 2) 금융기관의 자유화(**liberalization**)
- 3) 자본시장의 다양화
- 4) 금융기관 소유권의 개혁





III. 북한의 금융개혁 평가

3. 법제도 개혁의 실현

- 북한의 금융관련 법제도 개혁은 현실에서는 미실현!

미실현 사유: 체제불안? 성과부족?

- 금융개혁 성과 부족 원인:

1) 민간자금 동원의 미흡

“대출원천 = 자기자금 + 예금 + 중앙은행차입금”

2)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과 실물부문 부진

3) 거시경제 관리의 전문성 및 이해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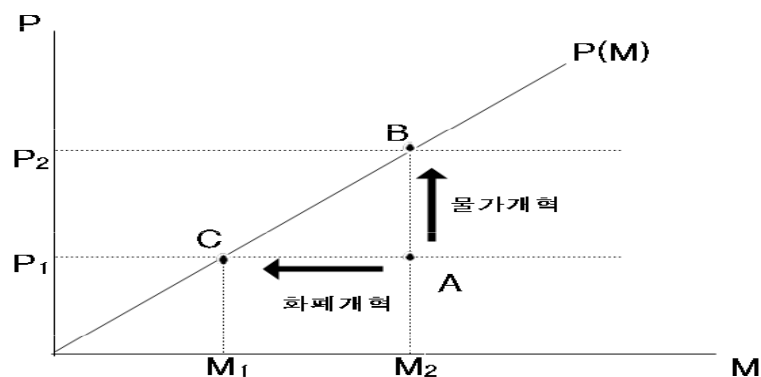


13



북한의 금융개혁 실패사례: 화폐개혁

인플레이션 압력과 해결방향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1



IV.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IV.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1.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 1) 통화 및 금융정책의 안정성
 - 2) 효율적인 자금순환 구조조성
 - 3) 금융의 산업적 기반 구축

2. 금융개혁 방향 (**David Dollar, 2015**)
 - 1)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 2) 통화정책 및 인플레이션 관리
 - 3) 금리조정 및 규제완화
 - 4) 환율관리 및 국제수지 균형 도모
 - 5) 자본시장 발전
 - 6) 글로벌시장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IV.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3. 금융개혁시 반드시 피해야할 사안 6가지 (David Dollar, 2015)

- 1) 이원적 은행제도- 은행위기 (**banking crisis**)
- 2) 통화정책 - 두자릿수 인플레이션(**double-digit inflation**)
- 3) 금리조절정책 - 마이너스 실질금리 (**negative real interest**)
- 4) 환율정책 - 통화의 과대평가 (**over-valued currency**)
- 5) 자본시장 발전 - 증시의 버블 (**stock market bubble**)
- 6) 금융시장 개방 - 핫머니 유입 (**hot money inflows**)



IV.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표 3〉 북한의 금융개혁시 주요 도전과제

<p>(1) 재정 및 경제 통계데이터</p> <p>(2) 중앙은행, 무역은행, 재무부의 역할과 업무분장</p> <p>(3) 국제금융시스템과의 관계설정</p> <p>(4) 국내 은행시스템의 확장</p> <p>(5) 은행의 감독과 규제</p> <p>(6) 지불시스템의 안정성 확보</p> <p>(7) 신용과 리스크 평가 역량</p> <p>(8) 가계에 대한 금융서비스</p> <p>(9)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p>	<p>(10) 거시경제 관리 역량 및 정책</p> <p>(11) 통화에 대한 신뢰</p> <p>(12) 은행에 대한 신뢰</p> <p>(13)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립과 보증</p> <p>(14)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p> <p>(15) 국내외 부채상환 의무</p> <p>(16) 세금정책 및 행정</p> <p>(17) 법적인 집행절차</p>
---	---

자료: Babson(2015), p.162에서 정리.



IV.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4. 금융개혁 추진 방안

1) 제도 및 금융기관 개편의 실행:

- 상업은행 분리,
- 정책금융기관 도입...

2) 통화 및 금융정책의 개혁:

- 통화량 관리정책,
- 단일환율로 전환,
- 환율제도 결정 - 고정, 변동, **currency board**...

3) 금융개혁 여건 개선

- 소유권 확립, 예금보호제도 도입
- 자유화, 대외부채 해소



19



IV.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표 4〉 금융개혁의 단계별 추진 순서

개혁분야	개혁과제	우선순위
금융기관개혁	금융, 재정분리	1
	이원적 은행제도도입	1
	보험회사 독립	2
	정책금융기관 설립	1
	자본시장 도입	3
제도적 여건개선	부실채권정리, 자본확충	1
	예금보호제도 도입	1
	금융기관설립자유화	3
	금융기관 사유화	3
	대외부채 상환	3
금융정책개혁	통화관리	-
	- 간접관리시스템 도입	3
	- 과잉통화흡수	1
	- 통화량조절정책 도입	2
	이중환율제도 개혁	-
	- 환율단일화	1
	- 통화가치 안정화	3



참조. 1: 초기과제, 2: 중기과제, 3: 장기과제. 자료: 윤덕룡(2013) 36쪽, 수정.

2



V. 결론: 북한 금융개혁의 도전



V. 결론: 북한 금융개혁의 도전

1. 북한의 이중 경제체제 (**Dual economic system**)로 제도적 불일치가 혼란과 비용초래
2. 북한당국의 시장억압정책은 다음 이유로 성공하지 못함
 - 첫째, 배급제도의 회복이 불가능
 - 둘째, 북한주민들의 생활방식은 체제전환이 진행됨
 - 셋째, 북한의 공경제도 시장에 의존
3. 북한의 금융분야 개혁은 거시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성과제고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므로 빠를수록 유리함.
 - 시장경제의 적극적 수용과 금융개혁의 조기실행이 필요



감사합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 론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 론 문

양운철(세종연구소)

1. 중국 체제전환 경험 적용의 문제점

가.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중국경제는 1978년 덩소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로 비약적 발전을 달성함. 경제개혁의 시발점은 농촌에서의 식량 증산이었고 방권양리(方權讓利), 승포(承包) 책임경영제와 같은 개혁정책의 시행에 기인함.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공업발전 자금이 증가하였고 잉여 농촌 인력이 도시로 유입되어 저렴한 노동임금을 담당하게 되었음. 정부는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자본주의 학습의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함. 화교자본의 유입도 증가하여 중국경제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 반면 금융개혁의 핵심인 중앙은행인 PBC는 1983년 명목상으로는 설립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 중국의 은행제도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생성된 4개의 국영상업은행(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이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함. 2010년 경우 4개 은행은 중국전체 예금의 71%, 대출의 65%를 담당하고 있음.

나. 중앙은행의 기능이 작동되었지만 방만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계획과 시장이 양립하는 雙軌制는 국영기업 근로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호하였음.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문제점이 덮여질 수 있지만 불황기에 정부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됨.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부족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였음. 금융감독과 부실채권에 대한 해결도 난제임.

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음. 북한에서는 극도의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개혁과 개방을 주도, 시행할 주체가 등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제7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노동당 최고 강령으로 설정하였음. 이런 기형적인 제도 하에서 국영은행 개혁을 통한 금융개혁을 기대하기는 난망함.

2. 변화의 조짐

가. 공산주의 제도 하에서 모든 금융서비스는 국가가 독점했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 국영은행은 중앙은행과 특수은행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 유일한 국영은행은 국영기업의 재무까지 관리함. 유일한 투자행위는 국영은행이 지정하는 낮은 이자율로 저축예금을 가입하는 정도임. 소비자 금융도 거의 제공하지 않음.

나. 북한의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 수요를 국내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를 위한 노력이 중앙은행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당국의 새로운 금융상품의 보급에 의한 자금순환, 인민생활영역에서의 카드·전자화폐 활용 등 정책을 홍보했음. 국가가 정한 생산계획을 달성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기업소 자체가 더 높은 수익 목표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강조함. 특히 북한 내 기업은 자금조달 권한을 부여받아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협동농장에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진열된 구매소가 있어 분배된 농산물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현금화하고 시장에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의미를 축소하고 부정적인 인상의 논지를 펴고 있음(조선신보 2015.2.22).

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국영은행에 저축한 예금마저 찾을 수 없음. 대안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돈주가 등장하였음.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자본 및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영은행을 통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사금융에 의존함. 2010년대에 들어 북한에서 시장제도가 보편화되고 어느 정도 안착되면서 사금융은 개인 간의 예대기능뿐만 아니라 물자대금 결제 대행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음.

라. 조선무역은행이 2010년 발행한 외화 전자결제카드 ‘나래’는 카드와 카드 사이에 송금이 가능하고 핸드폰에 의한 대금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음. 결제시간을 대폭 줄이고, 자금회전속도를 높여 상품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점이 있음. 현재 평양지역에서는 PC와 핸드폰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북한판 온라인 쇼핑몰인 전자상업 봉사체계 ‘옥류’도 운영되고 있음. 평양에만 제한되는 인터넷망을 통해 상품을 카드로 주문하면 상품이 집으로 배달되는 전자상업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음.

3. 신용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

가. 한반도 통일을 가정할 경우 높은 자본수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가 높음. 신용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낙후된 북한의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며, 생활보조금을 유량(flow)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어 화폐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임. 신용평가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월 소액이 입금되는 직불카드를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한국의 발달된 신용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북한주민의 신용평가 자료를 신속한다면 신용평가기관은 북한주민들의 신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임.

나. 소비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3국에 널리 확산되었던 여신과 외환 기능을 결합시킨 외화대출 상품(FX loan)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주변국은 풍부한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낮고 안정적인 이자율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대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토론문

- 김중호 연구위원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 장형수 교수님의 발표는 IMF, WB, ADB 그리고 AIIB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출범 배경, 주요 기능, 가입 조건 등에 관해 매우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각각의 금융기구 가입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가입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기존의 편견과 착각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음.
 - 특히, 중국이 북한을 AIIB에 가입시키려 한다거나 AIIB의 자금을 언제든지 북한 개발에 동원할 수도 있다는 오해와 착오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됨.
- 서론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게 되면...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문제는 본격적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 지금과 같이 대북제재 국면 등 핵문제 해결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음.
 - 본격적인 논의 및 추진과정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며, 어떤 역할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 앞의 질문과 연결되는데, 북한의 변화를 상정한 대북정책 속에 우리의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이 구체화되고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국제금융기구들을 상대로 비회원국인 북한에 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정책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법이 가능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 도발로 인해 동북아 협력 자체가 정지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양자간 또는 3자간 협력의 형태가 불편하다면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프로젝트 위주의 접근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향후 북한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미리 구상한다면, 사전에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협력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 새로운 신탁기금 조성, 협의체 구성 등)
- 또한, 결론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면, 북한의 IMF 가입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생각하기보다는 북한의 IMF가입을 조속히 실현시켜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촉진하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량과 정책 과제는 무엇이 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람.
 - 특히, 북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국가들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7월 1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파리클럽에 우리나라가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다고 하는데,
 - 미래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정에서 대외채무 이슈가 떠오를 때 한국의 파리클럽 회원자격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함.
 - 특히, 북한의 대외채무 청산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자금지원 수혜와 어떤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북한 금융개혁 및 통일금융 준비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금융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으로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이를 위해 동독의 금융개혁을 실시하여 시장경제가 확산되도록 하였으며, 동독의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시스템을 가동함

□ 동독지역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

- 시장 경제적 금융제도의 구축 : 금융제도의 개편, 금융시장 형성, 금융의 대외 개방 등
-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 제고 :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
- 새로운 지급결제제도 : 동독 중앙은행 개혁(중앙은행 기능만 수행하고 기업 대출 등은 새로운 독일신용은행 설립하여 담당). 동독 금융기관을 새로운 상업은행으로 개편하고, 동독지역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서독 및 외국은행의 진출 유도
- 금융 수단을 통해 동독지역 기업을 집중 육성 : 동독 주민의 대규모 서독 이주를 막았으며, 동독 지역 경제를 단기간 내에 재건 가능

□ 북한 금융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큼

- 북한은 금융을 “국가은행 중심으로 화폐자금을 계획적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북한 재정경제사전)

- 모든 자금의 유통은 국가의 경제계획에 의해서만 가능

- 북한에는 아직 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

- 북한에서 금융은 있지만, 동독지역 금융과 비교해서는 금융이라고 할 수 없음.

- 동독 금융은 어느 정도 시장 경제적 금융이 작동되면서 금융의 기능과 역할 수행

- 하지만, 북한은 금융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불가능한 수준

□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구 외자유치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개혁 방안 모색 중에 있음

-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금융조정위원회 신설(2015년)

<조직>

- 내각 산하로 조직

- 책임자 : 서기국 차관급 임명, 중앙은행 총재(김천균)가 총서기장

- 부총재 : 홍제룡 임명

<임무>

- 북한 정책 수립 및 집행

- 북한 전체 금융, 보험 기능 물론 감독기능까지 조정

- 북한 금융 기능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 발전 실무자 교육 양성

- 북한의 공식 결제통화를 위안화로하기로 북중간 합의한 이후 운영계획 수립 등

- 25년만에 재정은행일꾼대회 개최 : 2015. 12

- 금융기능 정상화 모색

- 경제개발구에서의 보험사업 : 조선민족보험총회사

- 경제개발구에서의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사업 진행

- 전자 결제카드 확산(중앙은행 전성카드 등)
 - 다른 카드소지자에게 송금할 수 있고 은행에서 현금을 다시 찾을 수 있음
 - 중앙은행의 모든 지점들과 무역은행, 대성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 그리고 광복지구상업중심,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옥류관, 청류관 등 봉사단위들, 각 도내 체신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

=> 7차 당대회 개최시 금융개혁 방향 발표하기로 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연기

□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금융 개혁 방향

- 첫째, 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개혁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
 - 기존의 북한 금융을 완전 해체하고 새롭게 구축
 - 시장 경제적 금융이 작동되도록 해서 북한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제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함
- 둘째, 북한금융의 개방화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 금융의 투명화 등
 - 북한의 국영은행은 해외은행들과 합작하여 새로운 상업은행으로 개편, 상업은행 설립 등
 - 수출입 금융 등 국제금융 거래시스템 구축
- 셋째, 창업 및 기업 육성 금융 시행
 - 북한 지역에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을 시행
 - 북한 지역 창업 및 기업 육성은 대량 탈북을 막고,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임
- 넷째, 금융 인력의 양성
 - 금융개혁 및 개방화 관련 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정책 결정자에 대한 마인드 전환
 - 금융 실무자 양성 : 외자유치, 자금결제, 은행 운영 등의 전문가

- 다섯째, 금융 전산화 및 주민 생활 금융
 - － 금융의 전산화 작업 : 인터넷 도입과 연계
 - － 주민 생활 금융 활성화 : 사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 통일 준비의 핵심은 통일금융임

- 통일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의 금융개혁 및 개방 → 남북한 금융 통합 → 남북한 경제 통합 등의 단계로 통일금융을 추진
- 대북제재 국면 이후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금융협력 및 통일금융 로드맵 마련, 시행 필요
 - － 국책 금융기관은 통일 금융의 역할에 대비
 - － 은행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임
- 북한의 장마당 활성화 등 시장경제 촉진 위한 금융협력 모색 : 금융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시장화
 - － 마이크로 크레딧 등